

“경비원은 가족” 각박한 아파트에 훈훈한 情

풍암동 광명아파트 입주인, 암 투병 돕기 성금 운동

수완 임대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건의·요금 부담

“박○○ 경비반장님의 아쉬운 퇴직을 알립니다. 반장님께 기적이 생겨 다시 오랏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편지를 씁니다.”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명메이루즈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변에 한 장의 편지가 내걸렸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작성해 주민들에게 띄운 편지는 경비원 박모(69)씨의 퇴직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편지에는 그가 스스로 퇴직을 택하게 된 이유였던 암투병 소식, 그를 위해 입주인이 모금활동을 벌이자는 제안이 담겼다.

경비원의 투병 소식을 접한 입주인 상당수는 관리사무소로 찾아와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일부 주민의 경우 눈물까지 쏟았다고 한다. 18일까지 입주자대표회 통장과 아파트 정문, 후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성금 200만원 가량이 모였고 오는 22일까지 최대 500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폭행 등 경비원 수난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2013년 입주 직후부터 입주인들과 경비원들이 ‘한 식구’처럼 지내왔다. 박씨를 포함한 4명의 경비원이 한말 한뜻으로 아파트 환경 개선,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부단히 헌신했고 이 사실을 입주인들도 고맙게 여겼던 것이다.

아파트 규모가 280여 세대로 비교적 작

아 늘 가족이나 옛날 시골마을 같은 공동체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이런 탓에 입주 첫 해인 지난 2013년 10월경 경비실 2곳에 에어컨이 들어섰고 그 해 겨울엔 각 경비실에 전기장판이 아닌 수습만원짜리 온수매트가 설치됐다.

코박 3년간 근무해온 경비원 박씨가 3개월 전부터 치료 때문에 출근을 제대로 못했지만 입주주민들 스스로 퇴직금과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퇴직처리를 8월 말까지 늦췄다고 한다.

입주자 대표 노양수(55)씨는 “경비반장님들 모두 입주 초기부터 워낙 친절하게 맡은 일을 해주셔서 입주주민들 모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3년간 코박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반장님이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해 다시 아파트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

민들도 경비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35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다.

에어컨이 설치되면 입주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이 주어질 수 있지만, 60%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했고 관리사무소는 공사 측에 최근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보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올 여름 폭염이 너무 심해서 경비원 어르신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위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측이 다른 임대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입주주민들의 뜻을 꺾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5 해질 19:50
해짐 19:16 달짐 06:32

그늘을 찾아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5/35	보성	맑음	22/33
목포	맑음	25/34	순천	맑음	25/35
여수	맑음	25/32	영광	맑음	24/34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완도	맑음	25/32	전주	맑음	24/33
구례	맑음	23/35	군산	맑음	25/32
강진	맑음	23/34	남원	맑음	23/33
해남	맑음	23/34	홍산도	맑음	24/30
장성	맑음	22/34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동~남동	0.5~1.0	북동~동	0.5
남부	남바다	동~남동	0.5~2.0	동~남동	0.5~1.5
남해	남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서부	남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1.5
	남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1.5

출몰

목포	밀물	썰물
	02:49	08:04
	14:54	20:11
여수	09:34	03:30
	22:06	15:32

주간 날씨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	☀	☀	☀	☀	☀	☀
24/35	24/33	24/34	24/34	24/33	24/33	23/32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광주교육청, 공무원 임금 3% 인상 합의

광주교육청은 18일 광주지역 교육공무원 공동교섭단과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1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올 추석 명절휴가비 50만원 ▲성과상여금 연 70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급 상한선 인상 등이 포함됐다.

추석 명절 휴가비는 지난 설(30만원)보다 올랐고 성과상여금도 연간 55만원에서 인상됐다. 장기근무가산급 상한선도 다음달부터 2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상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금인상분으로 ▲기본급 16억 6800만원 ▲장기근무가산급 9억9200만원 ▲성과상여금 4억4200만원 ▲명절휴가비 8억9300만원 등 40억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광주교육청은 19일 오전 11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주지역교육공무원 공동교섭단과 합의를 체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향 생각... 기다림도 즐거워

KTX호남선 추석 열차표 예매가 진행된 18일 이용객들이 광주시 승정역 대합실에서 열차표를 사려고 길게 줄서있다. 코레일은 이날 하루 동안 호남선 열차표 9000매 가량이 예매됐으며, 잔여 좌석과 취소분은 20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체제 돌입

이사회, 투표비용 등 수용... 전남대, 오늘 평의원회 개최

조선대 총장 선거가 본격화된 전망이다.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선출을 위한 대학평의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고 총장 선출 방안을 확정하면서다.

조선대는 18일 제79차 법인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총장 선출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앞서 대학평의원회가 교수·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

합해 총장선출 방안을 제출하면 검토해 결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는 총장 선출과 관련, 대학평의원회의 4가지 핵심 제안 사항 중 결선 투표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용했다.

우선, 직접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비율을 ▲교수 76% ▲직원 13% ▲학생 7% ▲동창회 3% ▲기타 구성원 및 지역사회 1%로 정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민립대학

인 점을 감안해 광주시장·시의회의장 등 지역사회 참여 인사의 투표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교수평의원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각 3인의 위원과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 등 13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그대로 수용했다.

이사회를 배제한 구성원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시모집을 앞둔 학교가 입게 될 영향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사회는 1차 투표로 1·2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2·3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총장 임무보자로 10명이 거론되는 만큼 자칫 1위 후보자 득표율이 50%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학평의원회와 총학생회 회의 전 이사회 결의를 수용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총장선거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는 게 조선대 안팎의 분위기다.

조선대 대학평의원회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초빙 공고를 내고 총장 선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대는 19일 평의원회를 열고 총장 직·간선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 실시 시기를 결정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메르스 의심' 광주 30대 음성

광주시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로 격리 조치된 30대 남성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광주시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를 4개월가량 방문하고 최근 입국한 A(39)씨의 1차 유전자 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서구보건소는 매뉴얼에 따라 음압 격리병상이 마련된 전남대병원으로 A씨를 이송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당국에 보고했다.

보건당국은 19일 2차 검사를 진행하고 메르스 최종 잠복기인 14일 동안 A씨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뇌물수수' 목포수협조합장 실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조합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김용환 판사는 18일 남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고(65)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을 통해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어민들에게 공급할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900여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